조선 로동당 만세!
김일성 원수만세!
소년단
1960.8

친선의 인사

박 팔양

나는 몇해전에 쏘련나라의
레닌그라—드를 찾아갔었네
거기엔 아동문화궁이 있어
쏘련 어린이들 놀고 있었네

내가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
그들은 와—하고 달려들었네
팔을 들어 소년단 경례 하고
쏘련 어린이들 일제히 하는 말이

"영웅 조선의 손님 아저씨!
아저씨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미제놈들과 싸워서 이기신
용감한 이야기 들려 주세요."

내가 우스면서 하는말이
"미국놈은 겁쟁이요 종이범
달려들땐 그럴듯 세여 뵈지만
《돌격!》 소리만 나면 도망쳐요."

쏘—냐라는 소녀가 나서면서
샛별같은 눈을 반짝거리며
"영웅조선의 씩씩한 어린이들은
전쟁때 무얼했나." 물겠지요

내가 흥이나서 대답하는 말
"우리 어린이들도 싸웠다오
안주빨찌산, 소년 서 강렬등이
어른들처럼 참 잘 싸웠다오.

싸—샤라는 소년이 나서면서
나보고 웃는 얼굴로 하는 말이
"아저씨 조선 어린동무들에게
우리의 친선인사 전해 주세요.

나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어린 동무들을 만날때 마다
싸—샤가 부탁한 그 인사를
잊지 않고서 전했답니다

레닌그라—드 아동문화궁의
행복한 쏘련 어린 동무들은
조선을 해방시킨 쏘련 나라
아저씨들의 귀여운 아들딸들

그들에게 인사를 전합시다
정다운 우리조선 어린이들의
형제와 같은 뜨거운 인사를
8. 15 해방날에 보냅시다

—1960. 8. 15—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8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8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박 세 영

남북의 한 형제들이
처참한 싸움으로가 아니라,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하자고
당은 한결 같이 내세웠다.

조선에서 미군은 물러 가고
외국 군대는 우리 일에 간섭 말라고
그러기 우리를 도와 준 쏘련 군대는
평화 통일을 바래 떠나 갔더라.

그런데 미제와 괴뢰 국회는
뻔뻔스레 꾸며 냈더라.
미군이 오래 도사리고 있을 것을,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것을.

미제의 앞잡이 간첩 도당은
땅 속의 씨앗을 들추어 내듯
혁명을 팔아 먹는 투쟁을 꾸미였다.
모든 애국자들을 학살케 했다.

남조선의 근로 대중도 일어났구나
조국 전선의 평화 통일 호소문 받들고
그러나 놈들은 전쟁으로 대답했다.
어느 새 침략자의 불'길로 강산을 덮었다.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부름 따라 멸적의
기세 드높이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탄원해 나서는 청년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로

신 상 호

땅도 하늘도 바다도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미국 승냥이들 미칠듯이 북으로 달려든
1950년 6월 25일

기계'소리 우렁차던 공장에
싱싱하게 오곡이 자라던 논밭에
놈들의 검은 폭탄 떨어지고
웃으며 노래하며 학교로 가던
귀여운 소년들 피에 젖어 쓰러질 때

《일어서라, 삼천만 겨레여!》
당은 불렀다.
인민의 힘 묶어 세웠다.

조국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에

용감하고 슬기로운 아버지와 형님들이
총을 메고 전선으로 떠나갔다.
사랑하는 오빠와 누나들이
미제 원쑤를 처부시는 싸움터에
나도나도 앞을 다투어 나섰다.

굳게굳게 하나로 뭉치여 나가는
승리의 대오 그 앞장엔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 서셨다.

사회주의 조국은 참 좋다!

—평양시 중구역 소년단원들의 좌담회에서—

조 병 권

8. 15 해방 15주년을 맞으면서 평양시 중구역 소년단원들은 항일 혁명 투사 손 명직 선생, 공화국 영웅 김 성진 형님, 공훈 광부 박 삼차 아저씨, 김책 공업 대학 교원 리 강호 선생님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지였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으며 사회주의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 희순 (서문 고중) —손 명직 선생님 항일 유격대가 우리 조국을 찾기 위해 왜놈들과 싸운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요.

손 명직 선생—동무들이 아다 싶이 우리 항일 유격대는 15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오늘의 우리 조국을 찾기 위해 일제 원쑤 놈들과 싸웠습니다.

나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아동 혁명단 생활을 하다가 열 다섯 살때 항일 유격대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동북에서 왜놈들과 싸우면서 왜놈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자주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조국 땅에 들어 오군 했지요. 우리가 무산 지구 전투에 참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조국땅에 들어 섰을 때 일이예요.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 서자, 모두 서로 얼사 안고 《조국에 왔다》고 하면서 막 춤을 추었어요. 항일 유격대원들은 항상 조국 산천을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워 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조국을 짓밟는 일제 원쑤놈들을 더 없이 미워 했지요. 《유격대 행진곡》에도 있는 것처럼 유격대원들은 오직

손 명직 선생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라는 이 한가지 생각으로 불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격대는 령하 40도가 넘는 눈보라 속에서 허리까지 빠지는 밀림의 생눈을 헤치면서 행군하였고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수십 일씩 낟알 구경을 못하면서도 누구하나 곤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구어 먹을 사이가 없어서 언채로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날것을 그대로 뜯어 먹으며 왜놈들과 싸웠답니다.

오 점자 (동성 중학교) —선생님, 그때의 아동 혁명단원들은 어떻게 투쟁 했습니까?

손 명직 선생—그럼 내가 직접 속했던 처창즈 유격 근거지의 아동 혁명단원들의 투쟁을 이야기 해 드리겠어요.

그때의 곤난이란 말 할수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순전히 풀과 소나무 껍질, 뱀, 개구리 같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 갔었지요. 식량 공작을 나갈래도 원쑤놈들이 겹겹이 둘러 싸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소금까지 떨어져 느릅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우려 소금 대신에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물이여서 많이 먹으면 곧 설사를 만나군 했어요.

원쑤놈들은 하루에도 몇차례 씩이나 기여 올라 와서 집을 불사르군 했어요. 심지어 놈들이 불태워 버린 그자리에 하루에 일곱 번까지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동 혁명단원들은 조금도 락망하지 않고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용감히 싸웠어요.

우리 아동 혁명단원들은 산마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섰다가 적이 오면 수기 신호로 련락을 하는 일이라던가 또 적들 속으로 들어 가 정찰도 해 왔고 때로는 빨찌산의 비밀 련락도 다녔지요.

그리고 폭탄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가마 깨진 것, 보섭 깨진 것을 모아서 무기창에 보내 드리군 했지요. 어떤 때는 유희대를 조직하여 유격대 아저씨들을 노래와 춤으로 위안도 해 드리고 유격 근거지를 돌아 다니면서 춤과 노래를 섞어가면서 《우리들은 왜 싸워야 하는가》하는 연설로 선전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대를 조직하여 직접 적들과 싸우는 유격대 아저씨들의 뒤에 가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불러 싸우는 아저씨들을 응원 해 드리는 일도 했지요.

그때 아동 혁명단의 규률이란 아주 강했습니다. 한번은 한 동무가 응원을 나갔다가 슬쩍 빠저서 유격대의 대렬에 들어 가 적들과 용감히 싸웠지요. 원쑤를 미워하는 그의 행동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아동 혁명단의 규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단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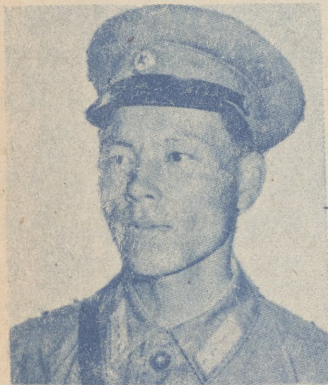
그것은 오직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밑에 싸우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한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에서 왜놈을 몰아내고 오늘과 같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야 겠다는 애국심에 불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항

일 유격대의 피어린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로동당과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가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김 성진 영웅

박 금선 (종로 중학교)—이번에는 미제 놈들이 우리 조국을 침략해 왔을 때 목숨으로 조국을 지킨 영웅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 성진 영웅—나는 어린 시절을 왜놈들과 그리고 미제와 리 승만 도배놈들에게 짓밟히웠어요. 학교라는게 다 뭐예요. 나는 남반부에서 의용군에 들어 갈 때까지 낫놓고 ㄱ자 하나 몰랐습니다.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해서 오직 당과 공화국의 품속에 안겨 글도 배웠고 오늘처럼 사람 구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제놈들은 우리들에게서 이 행복을 빼앗으려 달려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행복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인민 군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웠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후 나는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김 일성 원수님의 전사답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싸워 조국을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53년 1월 8일, 565.7고지 습격 전투의 날이였어요. 나는 이날도 맨 앞장에 서서 적의 고지로 올라 가고 있었어요. 적 화구 8m 지점까지 다가 갔을 때예요.

잠잠하던 적의 화구에서는 갑자기 미친듯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나는 마침 쥐고 있던 반전차 수류탄을 던져 그놈의 화구를 단숨에 까부셨어요. 아 그런데 이번엔 그왼쪽에 자리 잡고 있던 다른 화점에서 또 불을 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얼른 허리춤에서 수류탄 하나를 또 뽑아서 던졌지요. 그러나 이번엔 화구를 면바루 마치지 못했어요. 적의 중기는 더욱 요란히 짖어 댔어요. 뒤를 돌아다보니 전우들이 쓰러지고 있지 않겠어요. 잠시도 지체 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나는 원쑤놈들의 불아구리를 가슴으로 막았습니다. 나는 내 생명 보다 조국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전우들은 단숨에 달려 들어 적들을 소탕하였지요. 그때 수 많은 총알이 내가슴을 뚫고 나갔지만 전우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원쑤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쑤놈들은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놈들을 물러가게 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야 말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견디다 못해 일어나 싸워 리 승만을 몰아내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껏 도와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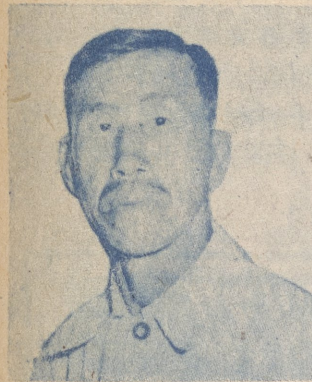
만일 미제놈들이 또다시 불장난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 군대는 원쑤들이 언제 어데서 침공한다 할지라도 단숨에 족쳐부시고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지켜 낼 것입니다.

원쑤들은 우리의 행복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욱 발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놈들이 얼씬 못하게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래일은 더욱 행복할 것이다

김 정숙 (봉화 중학교)—박 삼차 아저씨와 리 강호 선생님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 주세요.

박 삼차 아저씨—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산다. 난 너희 또래인 내 딸애 보고도 늘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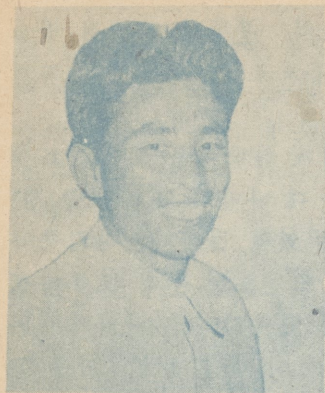
옛날 같으면야 너희들이 오늘과 같은 행복을 생각인들 해 보겠니, 난 열 세살 때부터 탄광에서 로동을 했다. 어둑 컴컴한 굴 속에서 매일 12시간~14시간의 로동을 했단다. 왜놈의 세상에서 32년 동안 탄광 일을 하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다. 지금도 눈물 겹던 쓰라린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군 한다. 탄광에서 죽을 고비도 얼마나 겪었는지 모른다. 바로 내가 삼신 탄광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동발이 불어 지면서 굴이 허물어져 우리 동무 세사람이 치워 죽지 않았겠니, 그래서 우리는 일본놈 자본가놈에게 갱내의 안전 보호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놈은 《조선 사람은 죽어도 일 없단말이야, 잔소리 말고 썩 물러가 일이나 해.》하고 호통치지 않겠니, 난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들고 갔던 곡괭이로 그놈의 책상을 쳐엎었다. 그 《죄》로 나는 삼신 탄광에서 쫓겨 났다. 후에 사동 탄광에 들어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놈들이 있고 자본가가 있는 세상 그 어디에 간다고 다르겠니, 한번은 굴에 들어 갔다가 숨이 막혀서 굴 안에 쓰러졌는데 글쎄 감독놈은 나를 보자 정신 차리라고 구두'발로 궁둥이를 차지 않겠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나는 동무들의 부축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 인공 호흡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단다.

박 삼차 아저씨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겠니, 이것이 다 나라가 없고 지주, 자본가놈들의 세상이였던 탓이다.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으로 된 오늘 우리 로동자들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니! 나라에서는 우리 탄부들에게 쌀, 양복, 신발, 기름 등 무려 열 일곱 가지의 물자를 내주고 있단다. 굴엔 썩은 동발대신 쇠로 만든 튼튼한 동발이 설치되였고 깨끗한 산소가 늘 공급된단다. 그리고 안전등이 있어 낮처럼 환하지, 일은 모두 기계화되여 도제 힘든 줄을 모르지,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힘있게 달리고 있다. 오늘이 이렇게 행복하니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는 우리 나라의 래일은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리 강호 선생—옳은 말씀이예요. 박 삼차 아저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이 없고 사회주의 조국이 없다면 우리들이 오늘과 같은 행복을 꿈엔들 생각 하겠어요. 나같은 머슴'군의 아들이 대학 교원이 다 뭐예요. 해방 전에 나는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못 가 봤어요. 여름철이면 남의 집 논밭의 김을 매 주거나 소 꼴을 베여다 주고 한술씩 얻어 먹었고 겨울이면 산에 가 나무를 해다 주고 얻어 먹었어요.

8. 15 해방이 된 후에야 비로서 나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였어요. 그때 내 나이는 열 아홉살이였어요. 나는 성인 학교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스므살 되는 해 중학교에 들어 갔지요. 동무들은 나더러 《아바이》라고 불렀어요, 그후 나는 전문 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 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오늘 대학 교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리 강호 선생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예'날 같으면 공부 할 념도 못할 수천 명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이 모두 무료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기술 일'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 김 일성 수상님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훌륭한 기술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배우며 일하면서 쓸모있는 산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일성 수상님은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여서 밭도 좁고 경사지가 많으며 물의 흐름도 매우 급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지형에 맞는 작은 뜨락또르와 물'살이 센데서 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상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배운 지식을 리용해서 우리 나라 경사진 산간 지대 밭에서도 달릴수 있는 작은 뜨락또르의 설계를 만들었고 물'살이 센 강에서 다니는 배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시험 생산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동무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이던지 만들어 보며 익혀보는 습관을 키워서 장차 조국의 쓸모있는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손 명직 선생—조국의 앞날은 동무들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국의 륭성 발전은 동무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배웁시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 하자!》

(손 명직 선생님은 소년단원들에게 소년단 구호를 주면서 소년단원의 경례를 하셨다)

일동—항상 준비!

그리운 남녘땅 동무들에게

—8. 15 해방 15주년을 맞으면서—

그리운 남녘땅 동무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우리들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동무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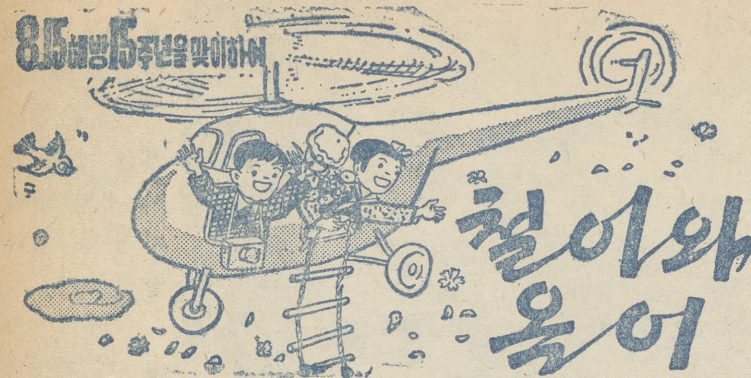
우리는 훌륭한 교실에서 모두 무료로 공부하며 해마다 나라에서 주는 외투와 새옷들을 타 입습니다. 내 동생은 수업료란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른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경치 좋고 아름다운 명승지에서 유쾌히 여름 방학을 보냅니다. 올 여름은 일본에서 돌아 온 동무들 까지 야영에 참가해서 더욱 흥겹습니다. 우리 야영소들에는 외국의 삐오네르들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글쎄 한 조상의 피를 이은 동무들과는 어찌하여 해방 열다섯 돐을 맞는 오늘까지 이런 행복을 나누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미국놈들 때문입니다. 미국놈들이 아니였드라면 우리는 벌써 함께 손목 잡고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놀며 공부하게 되였을 것입니다.

동무들은 더는 깡통을 차고 헐벗고 죽음의 생지옥에서 허덕이여서는 안됩니다.

새 생활의 길을 찾기 위해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피 흘린 동무들을 잊지 말고 그 처럼 끝까지 용감히 싸우십시요. 미제가 물러가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공부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평양시 만경대 구역 만경대 중학교 윤 추실

철이—소년단원 동무들 8. 15 해방 15 주년을 맞으면서 시작한 우리들의 조국 려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15년 동안에 달라진 조국의 위대한 면모를 동무들에게 직접 보여 주고 싶어 가는 곳마다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자 이 사진이 강철의 도시—송림에서 찍은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예요. 어때요? 바로 이 용광로가 미제놈들이 파괴한 것을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건설한 것이예요. 일제 때에는 여기서 하루에 300 톤도 되나 마나 한 쇠'물밖에 뽑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평균 750 톤을 뽑고 있는데 때로는 1,000 톤도 더 넘게 뽑아 내고 있대요.

우리 나라는 참 부자예요. 이 공장 외에도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강선 제강소, 남포 제련소, 문평 제련소가 있어 공업의 왕인 쇠'물과 강재들이 매일 강물처럼 흘러 나오고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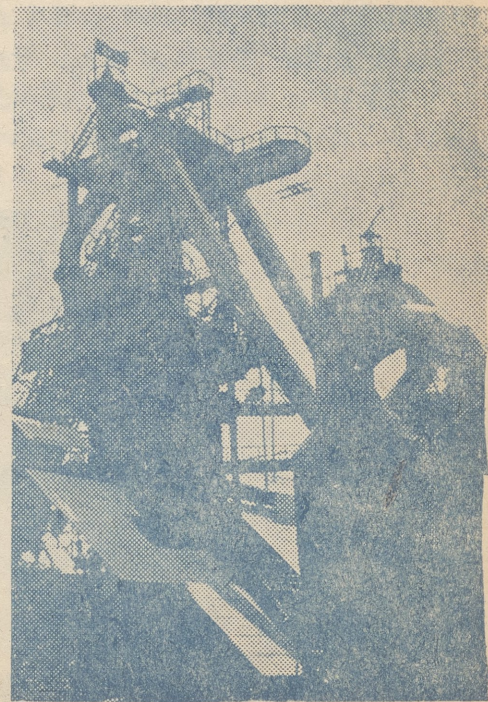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날아 올라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어요. 얼마후 우리 나라의 어머니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희천 공작 기계 공장에 내렸어요. 우리를 반가히 맞아 준 공장 지배인 아저씨는 공장 안을 구경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을 들려 주시는 것이였어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짐승들이 떼를 지어 쏘다니던 두메 산'골이였단다. 소달구지 하나 다닐만한 길도 없었지. 그런데 오늘은 이런 산간에까지 이렇게 큰 공작 기계 공장이 들어 앉았지. 지금 여기에서는 온갖 기계를 깎아 내는 선반, 볼반, 프레스와 같은 공작 기계들과 자동차, 뜨락또르 부속품을 비롯한 온갖 기계의 부속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단다. 그리고 공작 기계는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단다…》

해방전에는 고작 만들어 낸다는 것이 호미, 낫, 달구지 바퀴 밖에 못 만들던 것이 오늘은 글쎄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와 기양 기계 공장에서 만드는 뜨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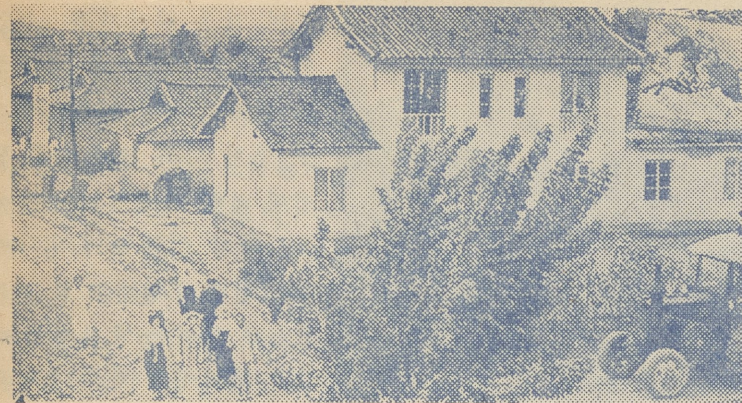
락또르를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됐으니 우리 나라가 15년 동안에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어요.

희천에서 떠난 우리들은 민주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 있는 평양 방직 공장에 들렸어요. 이 공장은 굉장히 컸어요. 글쎄 하루에 28만m의 천을 짠다니까 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기색을 본 직포공 누나는 《너희들은 뭘 그렇게 놀라느냐 우리 나라에 천을 짜 내는 공장이 이것 뿐이라구? 신의주 모방직 공장, 청진 방적 공장, 구성 방직 공장, 녕변, 박천 견직 공장, 개성 방직 공장들에서도 고급 양복지, 뉴똥, 양단, 모범단, 별의별 비단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단다.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승리-58》 형 자동차들

작년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매 사람 앞에 돌아가는 천의 량이 해방 전에 비해 114배나 늘었단다.

그런데 지금 신의주에는 이 공장보다도 더 큰 방직 종합 공장을 짓고 있구, 흥남에는 비날론 공장을 크게 짓지 않니, 이제 머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는 1년에 5억m의 천을 짜게 된단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 50m씩 차례지게 되지!》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가슴 흐뭇한 마음을 안고 여기를 떠났어요. 잠시 후 우리는 조중 두 나라 국경을 이룬 압록강 상공에 이르렀어요. 내려다 보니 쏘련의 원조로 더욱 웅장하게 건설된 수풍 발전소의 큰 언제가

평양 방직 공장 정방 직장의 일부

문화 주택들이 즐빗이 들어선 황남 재령군 삼지강 농업 협동조합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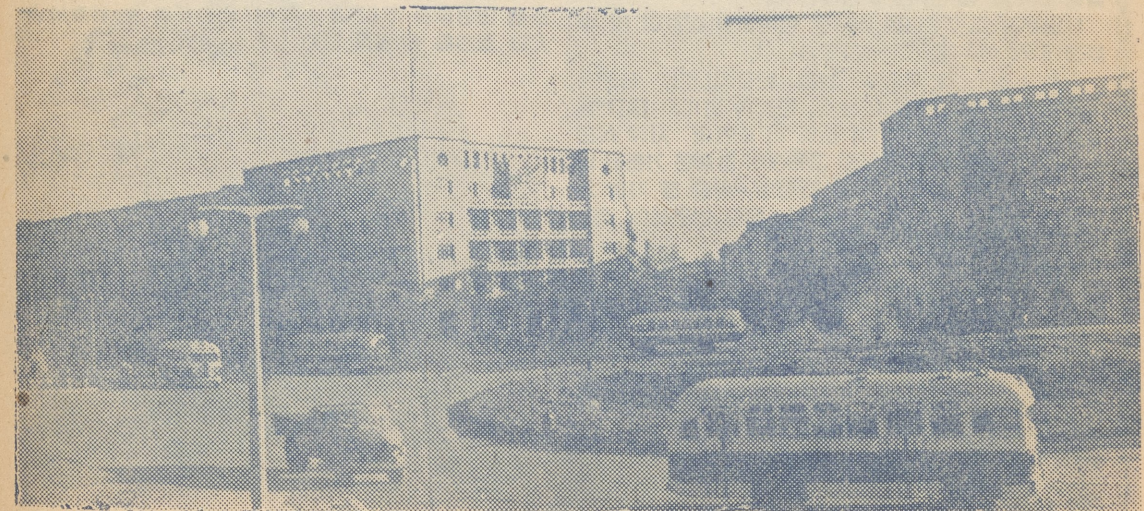
2천리 압록강을 막아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상공에서 사진만 한장 찍고 압록강의 흐름따라 서해안 쪽으로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 하류에 이르렀을 때 강 가운데 웬 섬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섬에 내렸어요.

예가 바로 평북 룡천군 전진 농업 협동조합이였어요.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것이였어요.

《이 섬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잡초와 갈순이 우거져 〈황초평〉이라고 불렸단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공화국 북반부 땅 그 어데서나와 같이 이 섬에도 행복한 살림이 꽃피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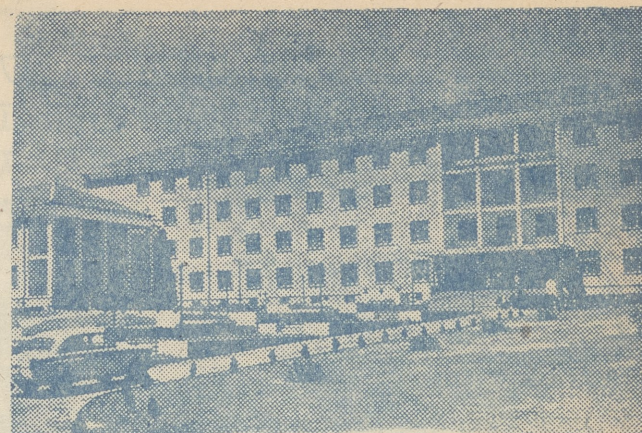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학교, 병원, 유치원, 탁아소, 구락부, 2만 여권의 책을 갖춘 도서실, 목욕탕, 리발소, 상점, 유선 방송실…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있지, 매 작업반마다 전화가 들어갔지, 집은 모두 문화 주택들을 쓰고 살지, 해마다 분배 몫은 많아져 살림은 늘어가지 뭐 부러운게 없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섬을 〈황금평〉이라고 부르게 됐단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룡천벌, 운전벌, 열두 삼천리벌 우로 나르면서 벌판 우에 그물처럼 덮인 수 많은 관개 수로를 찾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15년 동안에 관개 면적이 일본놈들 때 보다 일곱배나 되는 80여만 정보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물이가던, 왕가물이 오든 농민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게 되였어요. 그리고 농촌의 90% 이상의 지역에 전

민주 수도 평양 거리의 일부

새 학기를 맞이한 평양 대흥 중학교 소년단원들

기가 들어 갔고 8천 여대의 뜨락또르와 수 많은 자동차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으니 정말 일하기도 얼마나 흥겨워 졌어요.

옥이—해방후 우리 나라는 공업과 농업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가져 왔어요. 우리는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나라의 여러 전문 대학들과 중학교들에 들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교육 문화성에 들려 선생님들께서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 문화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해방 전에는 우리 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이 글을 몰랐는데 이제는 글모르는 사람은 없어진지 벌써 오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8년에 동양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고 이제 1962~1963학년도부터는 기술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된다지 않아요. 해방전에 하나도 없던 대학이 지금은 37개나 되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4명에 1명씩이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어요.

철이—우리는 이번엔 근로자 아저씨들의 휴양소들을 찾아 가기로 했어요. 가는곳마다 그 어데서나 춤과 노래로 들끓는 수 많은 근로자 아저씨들을 보군했어요. 해방 전에야 로동자 아저씨들의 휴양소라는게 어디 하나나 있었나요. 그런데 오늘은 경치 좋고 물 맑은 명승지, 바다'가마다에 정양소, 료양소, 휴양소 등이 많이 세워져 지난날에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근로자 아저씨들이 오늘은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즐거운 휴식을 하고 있으니 참말 좋은 세상이예요. 우리 나라에는 의사 없는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병은 모두 무료로 치료를 받으니 참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요. 그래 우리 나라에서 사망률은 해방 전에 비하여 58%로 내려 갔어요. 지난날 그처럼 락후했던 우리 나라는 15년 동안에 이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습니까. 이것은 오직 김 일성 원수님과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정책과 이를 받들고 우리 나라 근로자 아저씨들이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였기 때문이지요.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나라의 앞날은 더욱 휘황해 질 것입니다.

현대적 설비를 갖춘 평남도 종합 병원

이것은 미제 때문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가 제아무리 미쳐 날뛴다해도 투쟁에 일어선 남조선 인민들과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의 힘 앞에서 마지막 꼬리를 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의 8. 15 해방 15주년을 맞이합니다.

해방 후 15년 동안에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밑에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지상 락원으로 변하였는데 한날 한시에 해방된 공화국 남반부는 어떠합니까.

남반부는 북반부와는 반대로 인민들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인간 생지옥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은 강도 미 제국주의놈들 때문입니다. 놈들은 우리 나라를 해방하는 데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에 기여 들어 리 승만을 시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은 기름진 남조선 땅을 빼앗고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 해 가며 제 놈들의 썩은 상품을 가져다 팔기 위해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가 660만명에 달하며 땅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길'가를 헤매는 농민의 수는 300만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나이에 깡통을 들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며 청년들은 놈들의 괴뢰군으로 강제로 끌려 가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것이 오늘의 남조선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견디다 못해 드디여 일어나 싸워 리 승만을 몰아내고 계속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런 집에서 산다

당장 물러가라!

☆ 미제놈들은 학교를 빼앗아 자기들의 병사로 쓰고 있다 ☆

↑ ☆ 쓰레기 통에서 누더기를 주어다 팔아서 하루 하루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 ☆

싸우는 남조선 어린이들 →

> 《동무들은 양기 있고 활발하고 용기가 펄펄 뛰는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빨리 씩씩하게 자라서 희망의 꽃이 동무들의 손에 의하여 피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우리들의 여름은 즐겁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며 즐겁게 휴식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 주고 계십니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우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야영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나라에서는 올해 명승지 송도원에 또 하나의 훌륭한 새 야영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금년 우리 나라의 중앙, 도, 시, 군 및 학교 야영소들에서는 50만 명의 소년단원들이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배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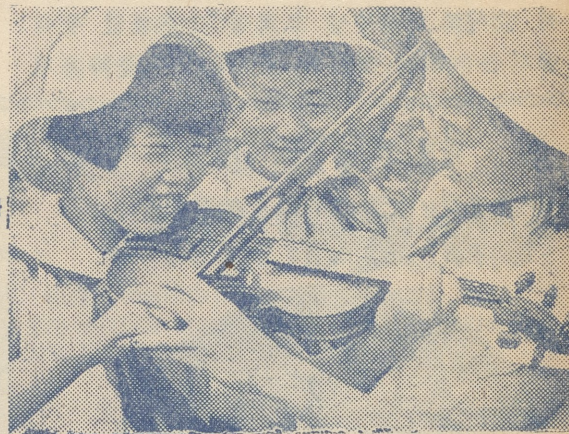
실로 이것은 사회주의 조국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 이 기쁨을 안겨 주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고마운 배려에 보답하기위하여 당과 수령의 붉은 어린 전사로 더욱 꾸준히 준비합시다. 사진 촬영 리 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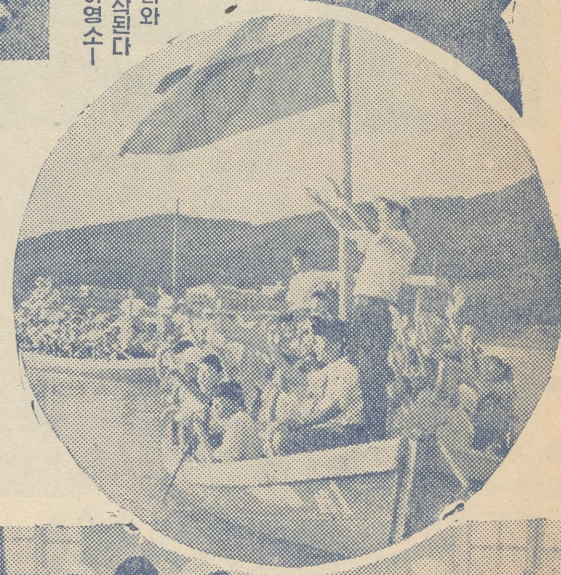
↑ 항일 유격대 참가자인 황 순희 아주머니와의 상봉 모임에서 아동 혁명 단원들의 투쟁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앙 속후 야영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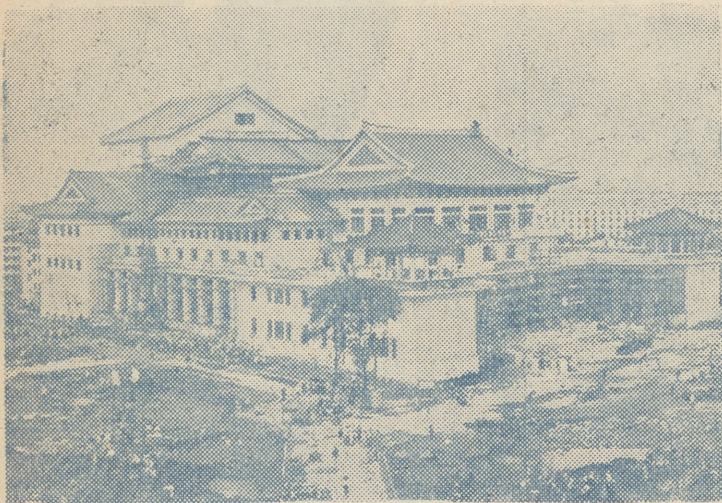
일본에서 돌아온 강 기파도 야영의 나날을 즐기고 있다→

석암 중앙 소년단원 야영소 전경

↑ 즐거운 등산의 한때
—석암 야영소 에서—

명랑한 기상 라팔 소리와 함께 흥겨운 일과는 시작된다
—석암 야영소—

파도를 헤치며 달리는 배'놀이는 흥겨웁지요
—석암 야영소에서— →

배'놀이와 동식물 채집도 즐겁지만 소나무 정자 아래서의 시랑송 모임은 더욱 흥겨웁지요
—석암 야영소—↓

↑ 우리들이 만든 식사는 더욱 맛나지요
—석암 야영소 가사 크루쇼크원들—

우리들의 《평양 구경》

평양 대극장

8. 15 해방 15 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민주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 모습이 달라졌답니다.

우리를 항상 행복에로 이끄시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있고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평양!

아마 동무들의 마음은 이 시각에도 줄곧 우리의 민주 수도 평양으로 달리고 있을거예요.

그럼 이제 동무들과 함께 《평양 구경》을 해 볼가요? 그런데 그 넓고 웅장한 평양을 한꺼번에야 어떻게 다 구경하겠어요. 그래 이번 8.15 해방 15 주년을 맞으며 새로 건설된 건물들을 구경해 보기로 하자요.

자 우리 모두 인민군 거리와 쓰딸린 거리와의 교차점에 있는 평양 대극장에서부터 차례로 구경하기로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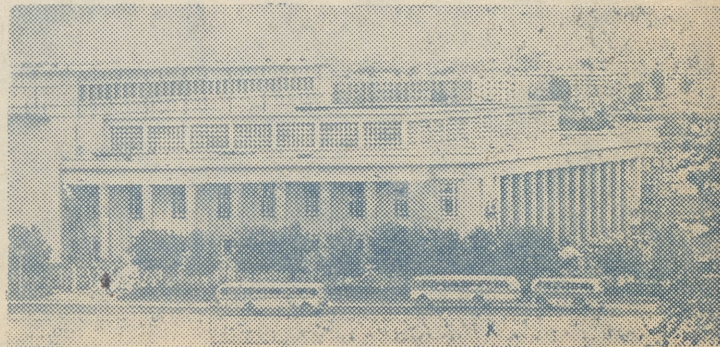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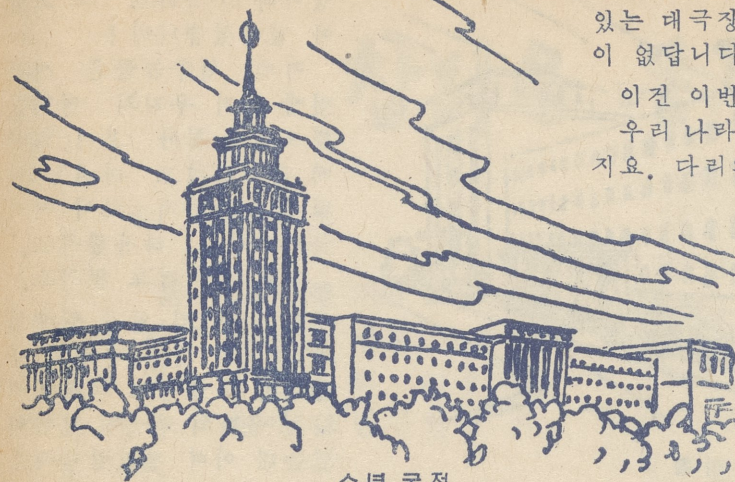
보세요! 이게 바로 소문난 평양 대극장이지요. 세계에 자랑할만한 크고 훌륭한 극장 이예요. 날아 오를듯이 하늘에 비낀 추녀들을 보세요. 여기 하늘을 떠받들듯이 선 아름드리 대리석 기둥들이 얼마나 되냐구요?. 무려 160 개나 된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놀라지 마세요.

여기 관람석은 모두 3층으로 되여 있는데 2,000 석이 넘는답니다. 무대는 또 얼마나 크다구요.

3,000 명 대합창단이 올라 설 수 있고 30 톤짜리 땅크도 자유로히 굴어 다닐 수 있다니까 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대는 모란봉 극장에 있는 회전 무대보다 발전된 승강 무대라는거예요. 무대가 아래 우로, 가로, 세로 마음 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대극장에는 모두 420 개의 방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걸 다 구경하자면 아마 며칠이 걸려야 할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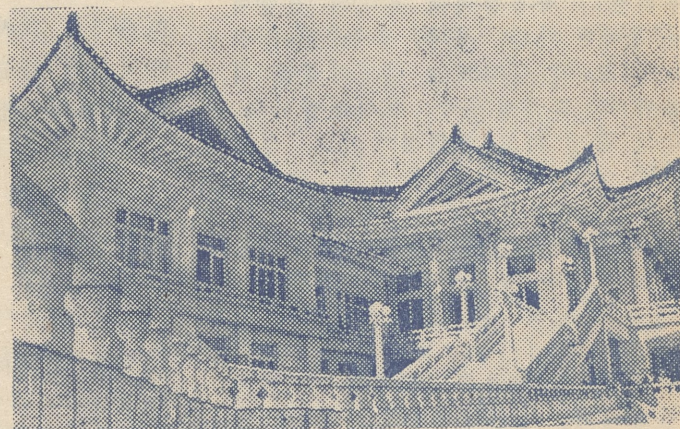
대극장 옆에는 외국 손님들이 묵는 5층집 국제 호텔이 또 섰지만 어떻게 이루다야 보겠어요. 그럼 다음은 조선 혁명 박물관으로 가자요.

조선 혁명 박물관

소년 궁전

자 여기가 김 일성 광장 앞 동쪽 옆에 새로 미술 박물관과 마주 선 조선 혁명 박물관이지요. 모두 발가스레한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단장되였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김 일성 원수님과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어떻게 일제와 싸워 이기셨는가를 보게 되며 그 고귀한 혁명 정신을 배우게 되지요.

다음은 동무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소년 궁전이예요. 동무들은 아마 그림만 보아도 벌써 척 알아 낼거예요. 이미 《소년단》 잡지 6 호에서 보았을 테니까요. 이 소년 궁전은 지금 벽돌 쌓기가 끝났는데 금년 말까지면 건설이 모두 끝나지요. 맨 높은 데가 11 층이구요. 그 속에는 544 개나 되는 각종 크루쇼크실들과 오락실들이 꾸려지지요. 그리고 2,500 명이 앉을 수 있는 대극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없는 것이 없답니다. 모두 한 번 와 보세요.

이건 이번 개통된 대동강 옥류교예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다리중의 하나이지요. 다리의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너비는 28.5 m이고 길이는 무려 682 m이지요. 바로 이 다리에서 바라다 보면 동평양쪽 해방 공원 옆에 웅장하게 선 쏘련 전람관이 보인답니다. 거기에는 공산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거두고 있는 성과들과 함께 우주 로케트를 비롯한 세계 1 등의 쏘련 과학을 자랑하는 온갖 전시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답니다.

옥류관

자 이건 옥류교에서 모란봉 쪽으로 좀 올라가 대동강 벽을 깎고 세운 옥류관이지요. 이 집은 대극장처럼 우리 나라의 건축 예술을 자랑하는 훌륭한 건물이랍니다. 여기에는 조선 료리는 없는 것이 없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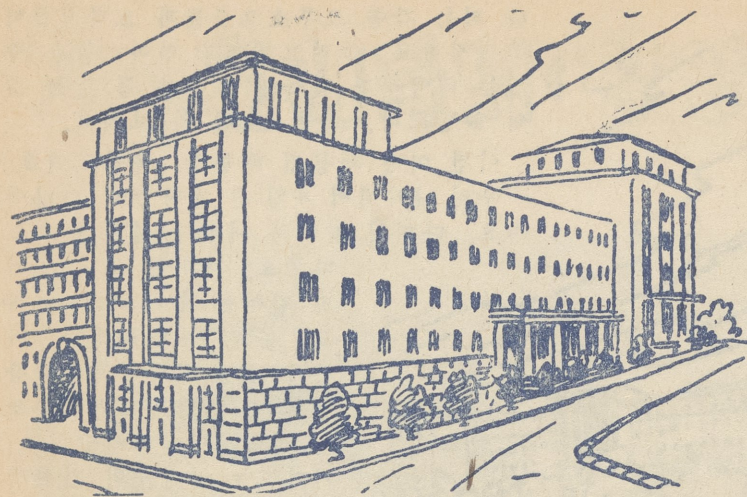
옥류교

아동 백화점

정말 우리의 평양은 이 얼마나 웅장하게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미제 원쑤놈들은 지난 전쟁 시기 우리의 평양을 옛모습도 찾아 보기 힘들게 파괴하였고 다시는 이렇게 웅장하게 일어 서지 못하리라고 타산했지요.

그러나 어림도 없지요.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도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영웅적 인민이 있는데 어디 될말입니까!

옥류관에서 길을 바꾸어 청년 공원 입구로 나오면 바로 아동 백화점이지요. 이 백화점은 10 층으로 건설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학용품이며 옷이며 신발이며 장난'감이며 과자, 사탕, 없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 상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관과 도서실까지 설치된답니다. 벽은 방을 밝게 하고 백화점에서도 평양 구경을 할 수 있게 유리 벽으로 한답니다. 참 굉장하지요!

여기서 뻐스로 모란봉 앞을 넘어 한참 가면 바로 모란봉 경기장에 이르지요.

경기장은 이번에 더 넓고 웅장하게 건설되였지요. 여기서는 낮에 뿐만 아니라 밤에도 각종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여 있답니다. 관람대에는 모두 7만 명이 앉을 수 있지요. 그리고 관람대 밑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요. 식당, 상점, 리발소 등 없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선수들이 쉬는 려관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무들 가운데서도 전국 체육 경기에 올라 오면 공연히 먼 데의 려관을 다니느라고 걱정할 건 없지요. 여기서 자고 경기에 참가하면 될테니까요.

단숨에 돌아보다 나니 자세히는 못보았군요. 앞으로 또 구경할 때가 있겠지요.

천리마의 기수들인 우리의 민주수도 건설자 아저씨들은 우리의 민주 수도를 정전 후 불과 5~6 년 동안에 이렇게 웅장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해 놓았지요. 특히 우리들이 방금 본 건물들은 불과 1년 안팎 사이에 건설하였답니다.

앞으로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질 것입니다. 평양의 이 모범을 따라 우리의 지방 도시들도 더욱 화려해질 것이고요.

지금 평양이 이렇게 웅장하니 앞으로 통일되면 서울은 또 얼마나 웅장하게 빠른 속도로 건설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멀지 않았지요.

그럼 다음에 또 구경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자요.

모란봉 경기장

참다운 동무

글 김준규

그림 리영근

붉은 넥타이를 매던 날

개성 지구 판문군 상도 중학교 9 분단 벽보 주필인 리 치우 동무는 작년 9 월에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치우가 아직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던 1950년 겨울이였습니다.

이곳 상도 마을에 다시 기여든 미제 원쑤놈들은 치우네 집을 제 집처럼 빼앗아 찾이하고 애국자들을 잡아다 학살하였습니다.

격분한 치우의 아버지는 지붕에 석유를 치고 불을 지르려다가 그만 놈들에게 붙잡혀 학살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그때를 더듬으며 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편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오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우는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로하여 조그마한 주먹을 돌처럼 굳게 쥐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군하였습니다.

《어머니 난 꼭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 이담에 아버지 원쑤를 갚고야 말겠어요.》

벌써 여러 번 어머니 앞에서 한 이 말을 치우는 소년단원이 되던 날 붉은 넥타이를 만지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힘 있게 외웠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은 내가 분단의 영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치우는 소년단에 입단한 날부터 이렇게 그날 그날의 소년단 생활을 생각해 보군 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항일 빨찌산 투사들, 그리고 아동 혁명단원들에 대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듣는 일은 치우의 제일 귀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치우는 꼭 그분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분단 벽보 주필이 된 치우는 분단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알아 뒀다간 분단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벽보에 내기도 하고 잘 타일러 고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회에서 맡은 일은 어김없이 해내고 그를 분단 위원장 동무에게 알리군하였습니다.

지난 4 월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으며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진급 시험을 치고 그 자랑을 적어 원수님께 편지를 보

내자고 의논했습니다.

이때 치우는 산수 공부에서 가장 뒤떨어진 박 태동 동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소년단 규정을 토의할 때 치우는 동무를 사랑하고 돕는 것은 소년단원의 참된 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날 치우는 분단 위원회에 참가하고 태동이 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마침 이날은 산수 사칙 문제에서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었지만 치우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개 넘어 태동이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이날밤 치우는 태동이가 다 알때까지 차근차근 알려 주고 일어섰습니다. 태동이의 어머니는 자고 가라고 말렸으나 치우는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날 밤 치우는 그렇게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츰 태동이는 제 힘으로 산수 문제를 풀 수 있게까지 되였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태동이의 산수 공부는 분단 동무들 모두에게 힘을 내게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가?

단 위원회에서는《꼬마 완충기 계획》활동을 잘할 데 대하여 의논하면서 더 많은 토끼를 치기 위해 토끼 우리 앞에 방목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치우네 분단 동무들은 이 일을 제일 먼저 다했습니다. 토끼우리 앞에 토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풀을 심고 벽돌로 한 메터 정도의 담을 쌓아 토끼들이 뛰여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 3 학년 형님들은 졸업시험 공부에 바빠서 아직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우네 분단 동무들은 도와주자고 의논했습니다.

《초급반 형님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겠니?》

누구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밤에 나와 하면 누구도 모르게 아니냐?》

머리를 갸우뚱하고 생각에 잠겼던 치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끼를 새 우리에 이사시켜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우의 머리 속에는 더 많은 토끼를 기르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토끼우리 앞에 모여선 초급반 형님들은 모두 어리둥절 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일가?》

밤새에 토끼 우리가 몰라보게 달라졌으니 안그렇겠어요.

또 한번은 비가 대'줄기처럼 퍼붓는 어느날 밤이였어요. 학교에 늦게까지 계시며 일을 보시던 지도원 선생님이 와자지껄 떠들며 뛰여 다니는 아이들의 소리에 밖에 나가 보니 치우네 분단 아이들이 토끼 우리에 비가 새지 않게 가마니를 한장씩 날라다 덮어 주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치우가 동무들을 데리고 달려왔던 것이지요.

이 사실이 분단 마다에 알려지자 이때에야 초급반 형님들은 지난 번에 있은 일도 이 기특한 동무들의 마음이였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 모두 붉은 마음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소년단원이 되자》는 제목으로 분단 총회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송 기찬 동무는 무엇인지 신문지로 세겹으로 싼 것을 펼쳤습니다.

《붉은 넥타이!》 기찬이는 놀래면서 반기였지요.

그리고 또박또박 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기찬아! 너의 붉은 넥타이는 색이 낡아 안되였구나. 이 붉은 넥타이를 갈아 매고 우리 모두 붉은 마음으로 자라자.…》

이렇게 쓴 편지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찬이는 몇 번이고 이를 곱씹어 읽었습니다.

분단 총회 때 기찬이는 자기 붉은 넥타이에 대하여 말하고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기찬이는 항상 넥타이를 호주머니에 꾸겨 넣어 가지고 다니기가 일수였습니다.

이날 동무들 앞에서 기찬이가 새로 맨 붉은 넥타이는 치우가 책새에 몰래 넣어 준 것입니다.

총회가 있기 전까지 치우는 분단 위원회와 의논하고 한마을에서 다니는 반 동무들과 함께 파지와 파고무를 모아서 기찬이에게 갈아 매줄 붉은 넥타이'감을 끊었던 것입니다.

붉은 넥타이에 담긴 귀중한 뜻을 따라 치우는 이렇게 분단 동무들을 도우며 붉게붉게 마음을 자래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방학간 토끼 기르기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8•15 명절을 축하합니다. 여기는 평북도 곽산군 천태 중학교입니다.

우리들의 방학간 토끼 기르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방학간에도 토끼의 시중을 잘 들어 주며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길러 내기 위하여 당번을 짰습니다. 지금 당번들은 매일 나와서 토끼를 잘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자꾸 내리는데 사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구요? 그건 문제도 없습니다. 벌써 우리들은 이렇게 장마질 것을 미리 알고 아예 장마철에 먹일 사료를 넉넉히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창고에는 우리가 뜯어다 말리운 싸리, 칡순, 완두콩깍지, 사라구, 민들레, 크로바들이 그득히 싸였습니다. 요즘은 매일 생풀을 뜯어다 시들어뜨려 말리운 풀과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시내'가에 나가서 개구리를 잡아다 탕쳐서 사료와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이니까 살이 피둥피둥 오르고 있습니다. 큰 토끼들은 무게가 3kg 이상씩 나갑니다.

장마철에 토끼우리 근처에 물이 차지 않도록 주변에 물도랑을 파고 물웅덩이들은 모두 메웠습니다.

토끼의 병 예방에 대해서 말입니까?

말하겠습니다. 장마철에는 토끼 우리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토끼들이 흔히 곽시둠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끼 우리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끼 우리의 발판을 여러개 만들어 놓고 젖으면 마른 것으로 바꾸어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화염 소독을 자주 해 줍니다. 특히 새끼 토끼들은 풀을 갓먹기 시작할 때 곽시둠에 잘 걸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미 토끼의 오줌 똥에 섞여 나온 균이 어미 토끼에 주는 사료에 묻는데 새끼 토끼들이 이것을 먹을 때 병균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끼 토끼가 풀을 먹기 시작할 때(난지 20일만에) 어미 토끼에서 떼여내여 다른 곳에 두고서 하루에 2~3회씩 젖 먹일 때만 한 우리에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여 곽시둠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전합니다.

피마주 해바라기를 잘 가꿉니다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함북 길주군 상하 중학교 단지도원 허 성국입니다.

8. 15 명절을 축하합니다. 네 말씀드리지요. 지금 우리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꼬마 완충기 계획》활동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오이 가꾸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심었는가구요? 우리는 분단 별로 나누어 큰 길'가와 공지에다 22,297 포기의 해바라기와 3,650 포기의 피마주, 150 포기의 수세미 오이를 심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분단별, 반별, 개인별 경쟁을 걸고 가꾸고 있는데 벌써 네벌 김을 끝냈고 두번에 걸쳐 덧거름을 주었습니다. 네? 그럼요. 우수한 분단들이 있지요. 11분단(인민반 3학년 2반) 같은 데서는 무더운 날에도 모두 웃옷을 벗어 던지고 김매기와 덧거름 주기에 떨쳐 나서 포기 마다에 2kg의 퇴비와 두 마리의 개구리를 잡아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되였지 요. 네! 가을에 가서 수확 정형을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보람찬 일터로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황남도 신천군 새날 중학교 졸업생 류 옥선입니다.

지금 나의 가슴은 막 기쁨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째서인가구요? 당과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여 온 내가 영예롭게도 졸업을 하고 보람찬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나가게 되였으니 말입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나가 장차 당의 붉은 농산 기수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수리화가 끝나고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되여 가는 우리 나라 농촌에는 지식 있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더 많은 알곡과 축산물을 생산하자면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우리 당이 그렇게도 관심을 돌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더 많이 농촌에 고착된다면 그들은 협동 조합에서 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협동 조합에 지식을 가진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농촌의 기술 수준은 더욱 빨리 높아질 것이며 농촌에서의 문화 수준이 급속히 향상 될것이며 농촌은 더욱 명랑하게 되고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신 수상님의 말씀은 나를 무한히 고무해 주었습니다. 전야의 오곡이 황금 물결치고 뒤'동산의 과일들이 무르익고 양떼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농촌은 끝없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나는 소년단에서 자란 영예로운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답게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기계화하고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일할렵니다.

뭘 하겠는가구요?

나는 뜨락또르 운전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로력과 기술로써 사회주의 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이야기

글 최 순 성 그림 최 종 순

해방된 이듬해에 나는 어머니를 잃고 홀연 단신 고아가 되였다. 타향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내가 살던 새터 마을에는 일가 친척이라군 없었다. 리 인민 위원장은 나를 애육원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으나 나는 마음이 좀 가라 앉으면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시던 이모네 집으로 찾아 갈 결심이였다.

기차를 타야 할 금천 읍내까지는 새터서 5리 밖에 되지 않았다. 그 대신 례성강에 합류되는 큰 내를 건너야 한다. 여울턱 우로 나무다리가 있었으나 그것은 장마'물에 떠 내려 갔고 그 아래켠 철교는 건너 가기가 무서워서 나는 물이 깊지 않은 곳을 찾아 내'물을 건너 가기로 결심하고 아래'도리를 벗고 들어 섰다.

강 한복판에 들어서자 세찬 물은 겨드랑이에까지 올라 찼다. 생각과는 달랐다. 점점 격해지는 물'살은 나를 그만 아래로 떠박질렀다. 연약한 나로서는 그 세찬 물'살을 이겨낼 수 없었다.

…무엇이 자꾸 덜컹거리는 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그러자 새파란 눈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웬 사람일가? 정말 옛'이야기에 나오는 룡궁에나 온 셈인가?! 새파란 눈 다음에 노랑머리가 보였다. 나는 너무 이상해서 몸을 뒤척거리며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더니 《하라쇼 하라쇼!》 하는 귀에 선 목소리가 들렸다.

《아 쏘련 군대 아저씨로구나》

그제야 나는 주위를 살펴 보았다. 나는 지금 찦차에 탄 쏘련 군대 아저씨의 무릎을 베고 그의 품에 안긴 채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신이 나른해진 나는 그런 속에서도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깼다. 이번은 자동차가 아니라 백포를 씌운 침대 우였다. 《많이 잤니? 기분은 어때,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한 군인이 나에게 말했다. 조선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통역원인 것 같았다. 그의 눈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다.

《알구 말구요. 쏘련 군대 아저씨죠.》

나는 편히 쉬고 난 뒤의 기분이였다.

《기분도 퍽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가요?》

그러자 통역원은 사실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다.

뚬낌 소좌가 뒤'개를 건너 금천과 계정 어간에 있는 청미기'굴을 거쳐 계정으로 찦차를 타고 나갔었는데 물이 많이 나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중에 나를 발견하고 옷도 벗을 새 없이 물에 뛰여 들어 건져냈다는 것이였다.

《이 분이 뚬낌 소좌이시다》 때마침 새 옷을 갈아 입고 들어 온 나이가 50가량 되여 보이는 한 로병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나를 살려 주셨군요.》 하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뚬낌 소좌는 《하라쇼 하라쇼!》 하면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도로 눕히고 나서 백포까지 잘 여미여 주었다.

그후 통역원은 나의 집은 어디며 집엔 누가 있는가 등등을 캐여 물었다. 나는 사실 얘기를 다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새 퍽 어두워졌다.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나와 베개 마구리가 푹 젖었다.

《쏘련 군대 아저씨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그렇지 않았드라면 나는 죽을 번했구나》

돌아 가시기 바로 전날 어머니는 나에게 《네 아버지 어머니는 험악한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죽는다. 왜놈들과 부자놈들의 등'살 때문에 잘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쏘련 군대 덕분에 우린 해방이 되였다. 김 일성 장군님이 귀국하셨으니 좋은 세상이 됐다. 아버지 어머니 몫까지 복 많이 받아 잘 살아야 한다. 부디 공부 많이 해서 새 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워야 한다… 넌 이모네 집을 찾아 가거라.》 하시면서 내 손에 돈과 반지를 꼭 쥐여 주시였다.

방문이 열리더니 금발머리 처녀애가 들어 왔다. 그는 발끝으로 걸어 침대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을 건니나 나는 로어를 알지 못했다. 여러번 거듭하여 제 가슴을 손으로 짚으면서 《다샤, 다샤》 하길래 그 애 이름이 다샤라는 짐작이 갔을 뿐이였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다샤》 하고 불러 봤다. 다샤는 이것을 듣고 뛸듯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이 측은히 여겨졌던지 그는 손'수건으로 내 눈'등을 닦아 주었다. 다샤의 눈언저리도 어느덧 벌개졌다.

이렇게 하루'밤을 지낸 나는 통역원을 따라 뚬낌 소좌에게로 갔다.

《싸지씨!》 그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으며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그리고 통역원을 통해 여러 가지로 내 의사를 물었다.

《이모네 집이 어디지?》

《잘은 몰라요. 가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저 봉산이라는 것 밖에 모르죠.》

《학교는 몇 학년에 다니댔니?》

《4학년에요. 그런데 요새 한 달 가량은 학교엘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 학교에 갈 생각이 없더군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뚬낌 소좌는 한참 동안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영철아, 네가 이모를 찾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모는 너를 잘 돌봐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허턱대구 가서는 고생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봉산군 인민 위원회로 련락을 해서 네 이모를 찾을 때까지 우리한테 있으면서 그 동안 학교를 다니는게 어떻겠니?》

뚬낌 소좌의 이야기를 듣고난 나는 그만 감격에 북받쳐 그의 품에 와락 달려들어 안긴 채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다음날 나는 뚬낌 소좌와 함께 학교로 갔다.

뚬낌 소좌는 교장 선생과 박 선생님에게 《영철이가 이모를 찾을 때까지 내가 그의 보호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는 서슴 없이 나를 불러 주십시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이날 종일토록 가슴이 들먹이고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돋히는 것 같았다.

새 아버지, 새 어머니, 새 누이가 생긴

것이다.

돌아 오는 길에 나는 통역원 아저씨에게서 뚬낌 소좌에게도 쎄로쟈라는 나또래 아들이 있었는데 독일 파시스트놈들의 포격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학교에 다녔다.

그 때로부터 보름 후에 학부형회의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부형 회의 소집에 대한 통지서를 돌려 주었다. 나도 통지서를 한 장 받아 쥐였다. 집에 와서 예까쩨리나 어머니(뚬낌의 부인)에게 그것을 드리면서 사연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예까쩨리나는

《좋아 뚬낌 안 계시니 래일 내가 가지.》 하고 말하였다.

그때 뚬낌은 지방에 공작을 나가 계셨던 것이다.

다샤는 늘 나에게 로어를 가르치느라고 애를 썼다. (글보다 우선 발음과 말을 배웠다.)

그대신 나는 그에게 조선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다샤는 인차 조선 노래를 배웠다. 그리고 그와 산보도 하였다. 다샤와의 생활은 실로 잊을 수 없는 것들로 찼었다.

학부형 회의를 하는 날 아침 선생님은 수업 전에 교실에 들어 와서 오늘 학부형 회의에 출석할 학부형 수를 조사하였다.

《영철인 누가 오시니?》

《어머니가 오십니다.》

나는 교실이 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랬더니 내 뒤에 앉은 갑선이란 아이가

《체, 네 어머니는 죽지 않았니.》 하고 비양'조로 말참견을 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정말 어머니가 오십니다.》하고 말했다.

선생님이 나간 뒤에 나는 갑선이에게 다가 갔다.

《넌 왜 말참견이냐?》

《참견하면 어떠냐. 네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뭐 잘못인가.》

갑선이는 나보다 키도 크고 주먹도 좀 센 편이였다.

《다시 말해봐라. 넌 날 깔보누나. 날 난 어머니는 도라 가셨다. 그렇지만 예까쩨리나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마침 종이 나서 나는 분을 참고 말았다.

그런데 갑선이는 나를 더 약 올려 주었다. 학부형 회의는 둘째 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강당에서 하기로 되였는데 회장에 갔다 온 갑선이는

《영철아 너의 엄마 잘도 왔드라야.》 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크게 웨쳤다.

나는 얼'결에 강당으로 달려 갔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였으나 나에게는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 오질 않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웬 녀인이 달음박질해 사무실로 오고 있었다. 금발 머리와 손에 핸드빽을 걸친 것을 보아 멀리서도 그가 예까쩨리나 어머니라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다.

하학 후에 집에 와서 나는 더욱 예까쩨리나 어머니의 정을 깊이 느끼였다.

내가 다샤의 방으로 갔을 때 다샤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학교에 늦어 가셨지. 내가 앓아서 주사를 놔주고 가느라고 그렇게 되였어.

어머니는 회의 시간에 늦게 되여 얼마나 근심하셨는지 너는 모를거야…》

토요일날 하학 시간에 나는 갑선이와 해보려고 결심했다. 나는 뒤'길 사과 발목에서 갑선이를 따라 잡았다.

《거기 좀 서라 야.》

갑선이는 모든 것을 알아 차리구 대뜸 대들 기세로 가방을 벗어 놓았다.

그애가 먼저 나의 빰을 후려쳤으나 나는 몸을 피했기 때문에 손끝이 코'등을 스쳤을 따름이다.

명준이가 뜯어 말려서 나는 손찌검을 그만 두었다. 갑선이는 질질 울면서 집으로 갔다.

사흘 후 뚬낌 소좌가 나의 침실로 찾아 왔다. 그는 애정 어린 인자한 분이면서도 또한 엄격한 아버지였다.

《영철아! 요새 공부 잘했니?》

《네! 국어 시험에서 5점을 받았어요.》

《5점이라구, 좋다.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뚬낌은 한참 동안 묵묵히 내 머리만 쓰다듬고 있더니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영철아, 너 왜 요즘 동무 학생을 때렸니?》

나는 뜻 밖에 당하는 추궁이라 처음은 어리둥절 했었다.

《나는 때린 리유를 묻지 않겠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네 마음엔 좋은 일로 생각되는지 말해 봐라. 그애가 잘못이 있다 해도 함께 공부하는 동무가 아니냐.》

뚬낌이 나간 다음 나는 오래'동안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었다. 과연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어느 덧 8. 15 해방 첫 돐이 가까와 왔다. 학교에서는 군적으로 열리는 8. 15 해방 1주년 기념 전람회 출품 준비를 하였다.

나는 대패와 톱을 가지고 학교와 집모형을 만들었다. 학교는 쏘련 화보에서 본 건축물을 약간 본따서 3층 중앙부에 첨탑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붉은 별을 붙였다. 집은 처마가 들린 기와집 형으로 만들었다.

내가 출품한 이 학교와 집모형은 전람회에서 학생 공작 1등 상을 받았다. 나는 무척 기뻤다. 1등상을 탄 것도 기쁘거니와 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뚬낌 아버지와 예까쩨리나 어머니께서 전람회에 나와 보셨으며 특히 내가 출품한 학교와 집의 모형을 보시고 기뻐하신 그것이였다.

《이건 대단한 재주이다. 학교에 첨탑을 세운건 영철이의 창안이지? 건축미가 좋아, 집은 민족적 형식을 잘 살렸군.》

《영철이는 건축가로 되겠는걸!》

이렇듯 행복과 희망으로 아롱진 나날은 하루하루 바뀌여 어언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뚬낌은 분망한 중에도 나의 이모를 찾고저 각방으로 힘써 왔다.

드디여 이모네 집을 찾아내게 되였다.

3개월이 좀 넘는 기간이지만 생명의 은인이며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와 같은 분들과 헤여진다는 것은 여간 가슴 쓰린 일이 아니였다.

내가 금교역을 떠나는 날 정거장에는 뚬낌, 예까쩨리나, 다샤 등 한집안 식구들과 박 선생님을 비롯하여 명준이 갑선이 등 많은 동무들이 배웅 나왔었다.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울먹거리여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만 차에 오르기 전에 플래트홈까지 따라 나온 뚬낌과 예까쩨리나에게 매달려 얼굴을 비비였고 다샤를 꼭 껴안았을 뿐이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 가실 때 내 손에 꼭 쥐여 준 반지(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때 아버지 한데서 받은 재물이였다)를 예까쩨리나 어머니의 손에 끼여 드리고

《기념으로 받아 주세요》했을 뿐이였다.

기차가 떠날 때 뚬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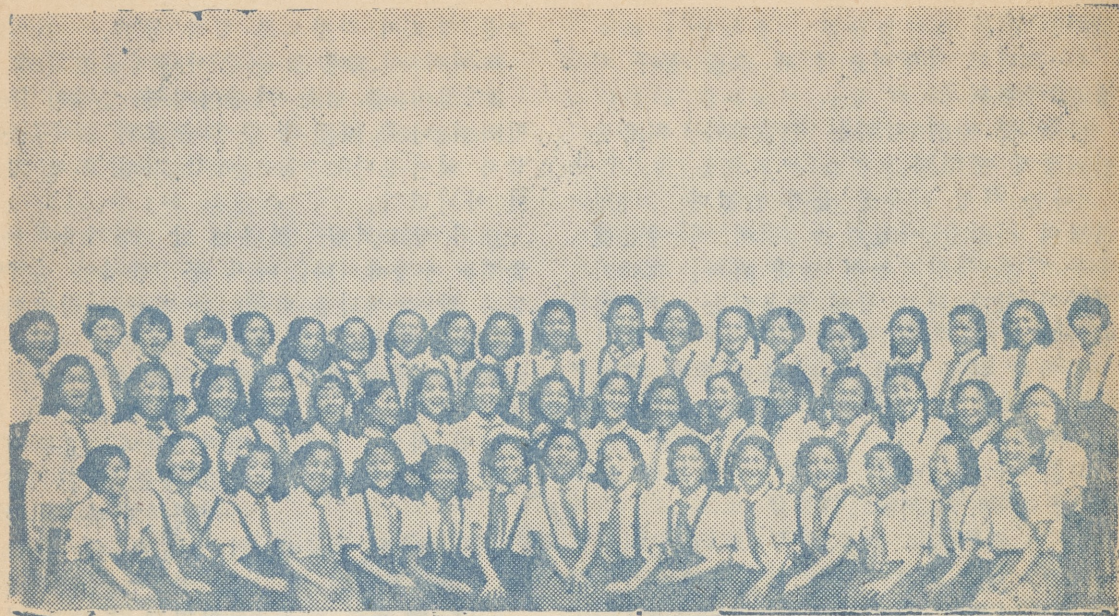
《영철아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고 말했으며 예까쩨리나는

《부디 몸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샤는 차를 따라 오면서까지 《편지 해 응》 하며 눈물을 훔치는 것이였다.

× ×

그 때로부터 세월은 지났다.

나는 그후 건축 기사로 되였다. 나는 지금 내 땀'방울도 스며 든 3층 아빠트에서 사랑하는 안해와 더불어 두 돐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베란다에 서서 록음 짙은 거리를 바라보니 실로 감개 무량해진다. 만일 뚬낌 소좌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던들 오늘의 이 가슴에 넘치는 행복이 있을수 있겠는가.

모두가 열성자이다

—강원도 원산시 근로 중학교 단 제 11분단에서—

글 최 죽산　　　　사진 촬영 리 동우

분단 총회가 있은 날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분단 총회가 있은 날이 였습니다. 금녀와 순자는 나란히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총히 걷는 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분단 위원장 홍금녀의 눈 앞에는 분단 총회에서 토론하던 동무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혼자 암만 애써도 안됩니다. 난 전체 분단 동무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춘복이와 백 옥순의 토론은 금녀를 몹씨 깨우쳐 주었습니다. (과연 내가 분단 사업을 잘하지 못했어, 몇몇 열성자들끼리만 모여 분단 사업을 의논하고 분공을 준 후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춘복이가 오늘 분단이 한덩어리가 되여 스스로 움직이려면 누구나가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난 날의 소년단 생활을 깊이 뉘우치고 이제부턴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훌륭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던 그가 더없이 믿어워졌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너 뭘 그리 생각하니?》 금녀가 꼭 분단 일에 대하여 생각하리라고 여긴 순자는 어쩐지 무엇인가 돕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금녀의 어깨를 툭 치며 다가 섰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전에는 시키는 일이나 수걱수걱하던 순자도 오늘 토론은 하지 않았지만 소년단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지 못했던 자기가 몹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아니 별다른거 아냐! 그저 내가 일을 혼자만 하느라고 애쓴 것 같애!》

《얜 그러기에 우리 분단이 그만큼이라도 됐지, 나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어! 참 금녀야 우리 말이지 분단 동무들에게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극으로 보여 주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인민반 동생들께도 보이고》 금녀의 얼굴을 바라 보는 순자는 자기가 어떤 못할 말이나 한 사람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순자의 손목을 힘 있게 잡은 금녀의 온 몸은 뜨거워 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구 있었어 그런데 순자야! 너 그걸 그릴 수 있니?》

《하면 하지 못할게 있어!》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도화용지, 색연필 그리고 물'감과 여러 가지 붓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자는 어쩐지 자기 일'손이 더딘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솜씨로 된 그림극을 보는 분단 동무들의 얼굴 마다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단 총회가 있은 후 분단 동무들의 생활에서 일어 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창남이가 분단 위원장을 찾아 왔습니다. 《난 정말 아직까지 나 혼자만 생각했어, 앞으로 연예 써클에서 내가 춤과 노래를 맡아 동무들에게 배워 주겠어!》 하고 말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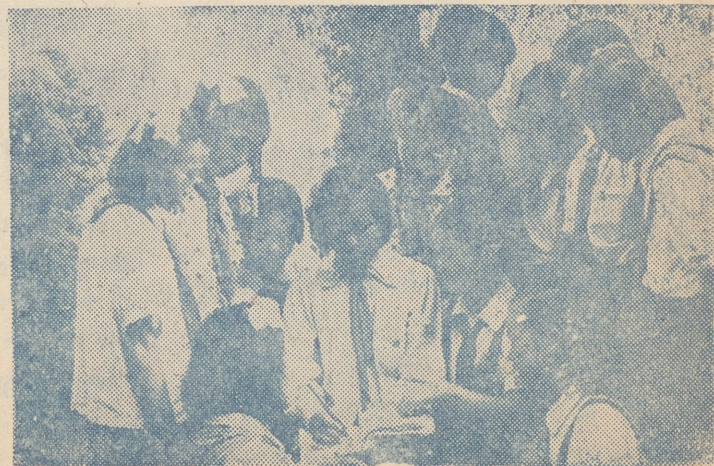
사실 창남이는 분단에서 맡긴 써클 지도를 이려저런 핑게를 해가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동무들은 그가 분단을 위해 일하도록 타일렀으나 그때 뿐이였습니다.

총회가 있은 날 밤 잠'자리에 누운 창남이는 뒤치락 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년단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잘 지켰던가? 분단에서 주는 위임을 내가 어떻게 지켰던가?) 하고 말이지요.

그 후부터 방과 후이면 새 노래'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교실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밤

지난 7월 어느날이 였습니다.

하늬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장들이 서쪽으로 몰려 와 뭉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비는 점점 대'줄기로 변하였습니다. 전 같으면 잠들었을 리 금화는 좀체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화에게는 분단에서 작업하던 양어장과 토끼 우리에 미쳐 덧 이영을 씨우지 못한 일이 머리에서 맴돌이 쳤던 것입니다. (흙을 쌓지 못한 낮은 곳으로 물만 터지면 동무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얻어 온

이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분단 사업을 의논한다.

잉어와 붕어는 물에 밀려 갈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바람에 토끼들은 얼마나 떨고 있을 것인가) 일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금화는 아버지의 비옷을 떨쳐입고 삽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화가 어둠 속을 더듬으며 양어장 가장자리에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누구인가 허리를 구부정 거리는 모습이 어슴푸레 뵈였습니다.

《순녀였구나! 넌 어느 새에 나왔니?》

금화와 순녀는 엇갈아 물에 들어가 낮은 곳에 높게 흙을 쌓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왔는지 금녀와 순자, 명화가 또 달려 붙었습니다. 억수로 내리는 비에 옷은 후줄거니 젖었으나 이들의 등골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양어장에서 일을 끝마친 동무들이 토끼 우리 쪽으로 달려 갔을 땐 정희와 옥남이 그리고 열아문명이 토끼사에 덧이영을 씌우며 메워진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일을 다 끝내고 돌아설 때입니다.

《이 웬 일이야? 누가 다 나오라고 련락이나 했나?》

누군가 팔소매의 흙물을 쥐여짜며 말하는 말에 분단의 익살'군인 월선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련락하긴 누가 하겠니 모두 붉은 마음들인데》라고…

아름다운 마음

어느날 교장 선생님껜 뜻하지 않은 두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은 대강 이러 하였습니다.

얼마전 분단의 홍 옥순 동무가 갑자기 앓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진급 시험을 앞두고 입원한 옥순이를 돕기 위해 분단에선 여러가지로 의논을 하고 파고무, 파유리, 휴지 등을 모아 수매시킨 돈으로 노트를 사다 그가 누워서도 짬짬이 볼 수 있게 시험 문제 답안을 간단히 써 넣어 주기도 하였고 그림책 《불무지 보초》도 사다 주군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찾아 가 분단의 소식도 알려 주고 때로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것뿐이 아니였지요.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앞 꽃 밭이 군데군데 빈데가 있는 것을 본 순복이와 정하와 춘옥이는 학교 화단에서 채송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꽃들을 떠 가지고 가서 심어 드리고 김까지 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분단 동무들이 모두가 풀도 뽑았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본 병원의 환자들은 련신 감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도 학교에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원장 선생님은 이처럼 학교에 편지를 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편지에는 김 순자가 한 늙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다 준 아름다운 이야기 였습니다.

* *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분단 총회가 있었고 소년단 규정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이렇듯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및 분단 위원, 반장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가요?

함남도 덕성군 양승 중학교 단 위원회

편집부는 이 물음의 대답으로 평양시 선교 고급 중학 단의 경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머지 않아 새 학년도가 되면 지난 1 년간의 단 및 분단 사업들을 마감하고 새로운 단 및 분단 위원, 반장들을 선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단 위원회에서는 벌써 지난 5월 초에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 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의논하면서부터 단 및 분단 위원과 반장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3 학년 형님 누나들이 많이 졸업하게 되므로 남은 위원들로서 역할을 한층 높이기 위해 단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열성자들을 위하여 《소년단원들 속에서 열성자들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누가 열성자로 될 수 있는가?》 《열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 강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들을 분단들에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단 위원회에서는 훌륭하게 사업한 17, 19, 27 분단 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전체 분단에서 본받게 하는 경험 교환회를 가졌습니다.

그후 각 분단들에서는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하자!》라는 구호 밑에 날마다 좋은 일을 한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늘어 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의 앞장에는 열성자들이 섰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각 분단들에서는 열성자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 갔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날로 늘어 가는 열성자들을 잘 키우기 위해 그들에게 일을 분공해 주고 한 일을 반드시 총화 평가해 주어 그들의 열성을 더욱 돋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 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과 소년단 규정 학습을 하기 시작한 이후 불과 몇 달 동안에 수 많은 숨은 열성자들이 발견되였고 그중에는 이번에 영예롭게도 중앙 민청 영예의 등록 표창을 받은 동무가 20 명이고 시와 구역 민청의 표창을 받은 동무가 30 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 단에서는 중앙과 시 야영소에만도 43 명의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이 추천되여 즐거운 야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학 기간에도 계속 열성자 강습을 진행하며 한편 방학간 반 생활과 《끄마 완충기 계획》 활동《소년 위생 근위대》《소년 록화 근위대》 활동 등에서도 열성자들이 앞장 서며 모범을 보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소년들 속에서 열성자들의 신망과 위신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라도 당장 단 및 분단 위원, 반장들을 선거한다고 해도 소년단원들은 훌륭한 동무들을 위해 서슴치 않고 손을 들것입니다.

평양시 선교 고급 중학교 단 위원 류 윤옥

에서 출연 하세요

이제부터 8. 15 해방 1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유쾌한 구락부》의 막을 열겠어요.

맨 먼저 출연할 프로는 평양시 선교 고중 학교 단 동무들의 군중 무용 《삐오넬가》(오른편)와 《만경대를 찾아서》(아래)예요.

이 군중 무용들은 모두 혁명 전통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얼마전 민청 중앙 위원회가 공화국 전체 학교 단 들에 널리 보급 하기로 지정한 무용이랍니다.

다음은 영예롭게도 이번 평양에서 진행되는 8. 15 해방 15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 출연한 어린 연주가들의 연주를 구경 하도록 하자요.

그럼 먼저 어린 피아노 연주가인 황북 송림시 제철 중학교 인민반 3학년 방 영자(13세)동무가 출연하겠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방 영자 동무는 벌써 일곱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곡들도 곧잘 치지요. 그래 그는 이번에 8. 15해방 15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도 참가하였지요.

다음은 어린 바요린 연주가로서 이름난 평양 사동 고중 인민반 4학년 김 용훈 동무가 출연합니다.

이 동무는 벌써 1958년 열살 때부터 전국 예술 축전에 참가하고 있답니다. 그는 학교 써클에도 열성껏 참가하면서 공훈 배우 백 고산 선생의 지도를 직접 받고 있지요. 이번 전국 예술 축전에서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 주었어요

소년단원 동무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를 지도 하시면서 우리 나라 소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명랑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시를 읊을 줄 알 뿐만아니라 누구나가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이들처럼 한가지 이상씩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음은 시 랑송이 있겠어요.

친선의 기'발

쏘련의 벗들께서 선물이 왔어요.
친선의 꽃씨를 주고 받으며
삐오넬 휘장도 교환했더니
오늘은 삐오넬기 보내왔지요

다정한 벗들 보내준 기'발
입맞추며 만져 보며
그 속에 아로 새긴 삐오넬 구호

우리는 외웁니다
《공산당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로 준비하자!》고

쏘련의 따스겐트는 멀고도 먼곳
우리 서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희망 하나로 통해
오늘은 보내왔죠 친선의 기를!

황해 남도 연안 고중 2학년
김 호 상

동요

우리 마을 경사 났네

우리 우리 마을은 참 좋은 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협동 마을에
오늘은요 아침부터 경사 났어요.
8. 15 명절 맞이 경사 났어요.

동산의 해'님도 벙글 웃는 이 아침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모여서
두둥실 명절맞이 춤을 추지요.
농악 소리 흥겨웁게 춤을 추지요,

—앞들엔 오곡으로 풍작 이루고
뒤'동산엔 과일들 무르 익으니
해마다 우리 살림 늘어 간다고
우리 마을 노래하며 춤을 추지요.

한 평생 지주집 머슴살이로
동뼈가 휘셨다는 억쇠 할아버지도
늙은이도 젊어 가는 이 세상에선
90이 환갑이라 한 몫 껴들며
얼사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함남도 신천군 방정 중학교 장 옥자

자강도 화평군 중도 중학교 3 학년 최 문익 그림

동요

모란꽃

동산 마루 둥근 해'님
방긋이 비쳐 주면
마당'가에 다북히
붉게 피는 모란꽃

아침마다 물을 주면
방실방실 반겨주며
우리집 모란꽃은
곱게곱게 아롱지죠

아침마다 앞동산에
붉게 솟는 해'님처럼
내가 심은 모란꽃아
어서 붉게 피여라!

우리 나라 통일 된날
남녘땅 동무들께
안겨 줄게 모란꽃아
더욱 붉게 피렴아.

함남 대흥군 대흥 중학교 전 춘옥

그럼 다음엔 박 인범 선생님이 쓰신 동화 《꼬마 석공들》의 구연이 있겠습니다

경호와 깡충이

원 광수 그림 (제2회)

꼬마 석공들

글 박 인범 그림 장 기복

소나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갑자기 동작리 마을 한복판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가 주먹만한 거미를 잡아다가 홍 지주집 외아들의 손을 깨물게 했다고 홍 지주가 달려 나와서 거미를 가진 아이의 멱살을 추겨들고 두들겨 주는 까닭이였습니다.

동리 아이들이 삥 둘러 섰습니다. 또 지나가던 어른들도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홍 지주는 무지한 주먹으로 거미 주인의 볼을 련거퍼 후려 칩니다. 매맞는 아이의 볼이 터져서 입으로 피가 나왔습니다. 또 눈퉁이는 시퍼렇게 부어 올랐습니다.

머저리처럼 엉엉 울고 섰는 홍 지주 아들의 손에서도 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홍 지주는 아이의 멱살을 놓더니 이번에는 다시 땅에 떨어진 작대기를 집어 들고 기운껏 아이의 잔허리를 후려갈렸습니다. 아이는 《아이쿠》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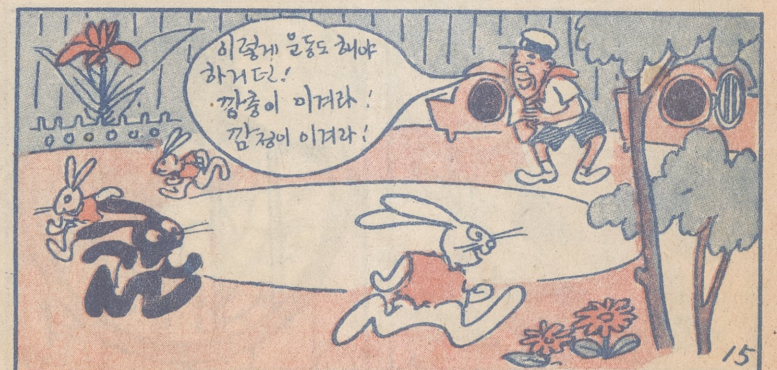
둘러 섰던 아이들 속에서

《여보세요, 왜 아이를 그렇게 때려요?》

하고 나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홍 지주는

《아, 이 자식 넌 또 뭐야?》

하며 미친듯이 작대기로 그 아이를 후

려 갈렸습니다. 그러나 나섰던 아이는 날쌔게 뒤로 살짝 물러 섰습니다. 그러자 홍 지주의 작대기는 땅'바닥에 헛탕 후려치면서 앞으로 허위적 거리며 엎어질번 하였습니다. 그러자

《앗 하하…》

하고 구경'군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씨근덕거리던 홍 지주의 분통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작대기를 피해 물러 섰던 아이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여보시오. 돌멩이를 쪼아 만든 거미가 사람을 어떻게 무나요? 자 보시오.》 하면서 불쑥 홍 지주의 눈앞에 돌멩이로 만든 거미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모여 섰던 아이들이 웅성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니까 만만히 알고 함부로 때리는거지 뭐 돌을 쪼아 만든 거미가 알고 물어?》

《개 같은놈! 량반? 개 팔아 두 량반》

하면서 모두 주먹을 쥐였습니다.

홍 지주의 작대기 앞에 쓰러진 아이는 석동이였습니다. 석동이는 홍 지주네 머슴살이를 하던 홀아비의 아들입니다.

바로 작년 여름에 홍 지주네집 뒤뜰에 우물을 파다가 파묻혀 죽은 머슴의 아들입니다.

우물은 먼저 여러 사람이 땅을 파헤쳐 놓고 차차 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인데 홍 지주는 좁은 흙구뎅이 속으로 석동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 넣으면서 우물을 빨리 파라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홍 지주는 자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석동이 아버지를 짐승처럼 부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석동이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동이는 자기가 크면 원통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고 벼르던 아이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할때나 남달리 즐겨하는 돌 쫒기를 할때나 항상 원쑤 갚을 궁리를 했습니다.

일하는 재주를 배워야 남에게 업수임을 받지 않는다고 석동이는 틈만 있으면 돌 쫒기 일을 공부했습니다.

더우기 석동이가 이 일을 열심히 하

는 데는 또 다른 까닭도 있습니다.

지난번 할머니가 집안에 쥐가 많아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시는 소리를 듣고 석동이는 산에서 검정 돌을 주어다가 며칠을 두고 그 돌을 쪼아 고양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엌 한 구석에 놓아 두었더니 그날부터 쥐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석동이는 돌 쫒기 공부를 더 잘해서 쥐 같은 홍 지주놈을 없이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운 쥐를 잡듯이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모기를 잡아 없애는 거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들과 맏저보며 구경을 하는데 홍 지주의 아들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돌거미를 만졌던 것입니다.

동리 아이들은 작대기에 맞아 쓰러진 석동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지나가던 어른들도 지게를 버티여 놓고 석동의 상처를 만져 주었습니다.

그때야 홍 지주는 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니 덜커덕 대문을 잠궜습니다.

석동이의 허리는 쑤시기 시작하고 눈퉁이는 더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석동이는 몸이 아픈 것 보다도 홍 지주놈에 대한 분통이 더 크게 부풀러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위험한 우물로 들어 가게 해서 죽게 한 놈, 동리의 논과 밭은 다 제것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써서 지은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또 마구 잡아다가 부려먹고 때리고 하는 놈, 오늘 자기를 이처럼 죽게 때린 홍 지주놈, 그놈만 없으면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살 수 있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석동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원쑤를 갚고 말테야》

하고 결심했습니다.

며칠후 석동이는 겨우 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 동무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 보면 사실 홍 지주네 아들이 돌거미를 만질때 돌거미는 정말 그놈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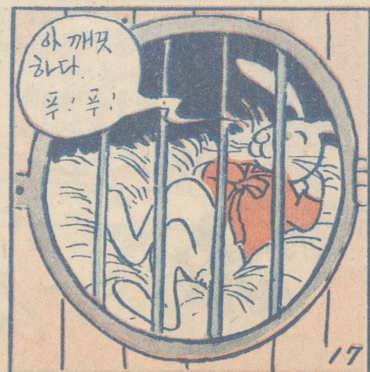
석동이는 돌을 쪼아서 수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관악산으로 올라가서 돌로 수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리들이 날아가 홍 지주놈의 정수리를 파먹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석동이의 마음을 아는 동리의 가난한 집 아이들도 석동이를 따라 관악산으로 가서 석동이를 도와 주었습니다. 돌을 골라 주기도 하고 정을 베려 주기도 했습니다. 또 석동이처럼 돌 쫒기를 배웠습니다.

수리를 만드는 석동이의 팔은 몹시 아팠고 땀은 비오듯 흘렀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러나 석동이와 아이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정성껏 돌을 쪼아 수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후 수리 한 마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리는 날아 주지 않았습니다. 석동이는 다음 날부터 더 정성을 들여 또 한 마리의 돌 수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

들어 놓은 수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석동이와 아이들은 조금도 락심치 않고 더 잘 만들기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맨 나중에 만든 돌 수리 한 마리가 훌쩍 하늘로 날아 올라 갔습니다. 석동이와 아이들은 눈이 번해서 이것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멀리 날아 까마득하게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수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수리는 어디로 무엇 하려 갔을가? 석동이와 아이들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때 석동이와 아이들이 동리로 들어 왔을 때였습니다. 고래등 같은 홍 지주네 기와집 대문에는 초롱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누군가 죽었음이 틀림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날 홍 지주가 작은 마을 곱단네 집으로 빚을 받으려 갔다가 돈이 없다니까 돈 대신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는데 어디서인지 돌수리가 날아 와서 홍 지주의 머리 우에 떨어져 홍 지주를 즉사케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곧 그 돌수리가 석동이의 손으로 만든 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 지주 같은 놈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아는 아이들은 그 이튿날도 관악산으로 올라 가서 정성껏 돌을 쪼아 계속 수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바삐 세상에서 그런 놈들이 없어져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악산에서는 뚝섬 앞을 흘러서 돌작나루를 스쳐 지나가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 저쪽으로는 안개 속으로 북악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앞으로 뚜렷이 멀리 남산 성벽도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또 관악산 서쪽으로 보면 안양, 시흥, 과천, 마을들이 차례로 굽어 보였습니다.

수리를 만들던 아이들은 이따금 허리를 펴고 이런 경치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조국 정다운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이 더한층 끓어 올랐습니다.

그 어느 날도 아이들은 일손을 잠시 놓고 먼 하늘로부터 안양, 시흥, 과천 마을 쪽을 바라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 안양, 시흥, 과천 마을들은 검은 연기와 불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을에는 요사이 저바다 건너에는 약한 나라를 쳐서 재물을 빼앗아 살아 가는 강도놈이 있는데 이놈들이 언제 들어 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쳐들어 온다더니》

《마을 집에 불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을 한다더니》

하고 생각한 까닭에 아이들의 가슴은 설레였던 것입니다.

과연 적들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탐내여 갑자기 쳐들어 왔습니다. 그 강도놈들은 한시 바삐 동작 마을로 쳐들어 온다고 서두렀습니다. 이때 수 많은 인민들은 적을 막아서 싸워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주놈들과 썩은 량반놈들은 적들에게 제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알랑대면서 적들 앞장에서 길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과천 마을 가까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산 우에서 이것을 보던 아이들은 빨리 동리 사람들께 이 소식을 알려서 적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름에 동리로 왔습니다.

동작 마을 사람들은 우선 나루'터의 배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른 묘한 생각이 돌지 않아서 급히 배의 키와 노며 삿대를 거두어다가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적들은 간악한 지주놈들을 앞세우고 벌써 동작 나루'터에 다달았습니다.

원쑤들은 배를 찾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와 삿'대며 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적들은 데리고 왔던 지주들에게 노와 키며 삿'대들을 찾아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더러운 지주와 량반놈들은 개들이 코를 끌고 냄새를 맡듯이 찾아 다니더니 마침내 모래밭에서 감추어 둔 노와 삿'대며 키를 찾아 내여 배를 저었습니다.

무심한 나루'배는 적들을 태워 가지고 강을 건너 갑니다. 두 척'세 척 나루'배는 있는 대로 물을 떠나 강 한복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름 하늘에 때 아닌 기러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기러기 떼들은 점점 한강으로 다가 오더니 갑자기 적들과 지주놈들이 타고 건너는 배를 향해 내려 꼰이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이것은 기러기떼가 아니라 석동이와 그 밖에 꼬마 석수들이 만든 돌 수리였습니다.

적들이 탄 배에 떨어진 돌수리들은 배'창에 큼직한 구멍 하나씩을 뚫어 주고 강물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배'창에 뚫린 구멍으로는 것잡을 수 없이 콸콸 강물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공짜로 남의 나라의 재물을 빼앗으려던 강도 원쑤들은 몽땅 한강 물 속에 가라 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꼬마 석수들은 게으르지 않고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 석수의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

—이상으로 《유쾌한 구락부》의 막을 닫겠습니다—

(끝)

6호 《오락실》 해답

수수께끼의 답—영화입니다.

찾아 내세요의 답—옳게 그린 토끼는 네째 번입니다.

75가 되게 하려면

수'자 1에서 24까지를 가지고 오른쪽의 매 동구라미 안에 어떻게 배치하면 6각형 안의 수'자 합이 75로 되게 할 수 있는가?

6 호 현상 문제 해답

1. 오각형 15 개
2. 원형 17 개
3. 삼각형 125 개

《나는 위생 반장인걸요》

어머니—영길아 남의 아이들은 매일 파리를 잡는데 넌 어째 파리를 안 잡느냐?

영 길—어머니! 난 매일 아침 아이들이 잡아 온 파리를 검열하는 위생 반장 인걸요:

어머니—뭐 위생 반장이라구 아니 그러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할게 아니냐.

영 길 네!! 저…

지난번 했는데

(일요일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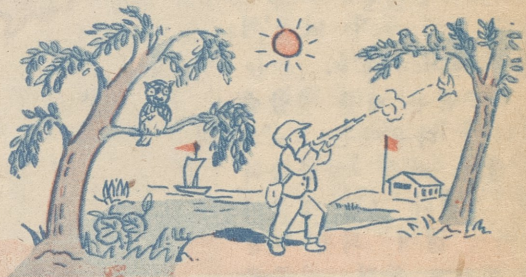
창규—애 영남아! 목욕하려 가잖겠니?

영남—지난번 했는데 뭐 또 할가?

창규—언제?

영남—전번 일요일날말야!

창규—뭐 전번 일요일에! 그럼 날마다 하는 세수는 어떻게 하니?

영남—거야머 얼굴하고 몸하고야 다…… 다르지 않니?

우의 그림에서 잘못 그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시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8 호 (총 130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393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공작 크루쇼크원들에게 주는 자료

달리는 뜨락또르

우리 학교의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달리는 뜨락또르를 만들어 냈습니다. 처음에는 양철로 모형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 보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술과 솜씨는 늘어 났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만든 경험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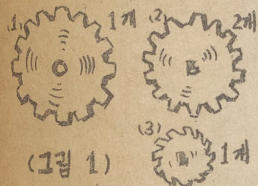
재료

양철, 철판, 판자, 쇠줄, 태엽, 철판, 못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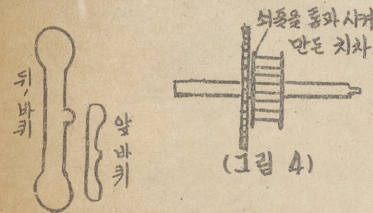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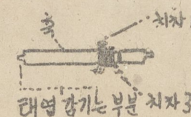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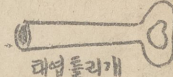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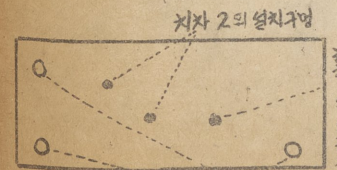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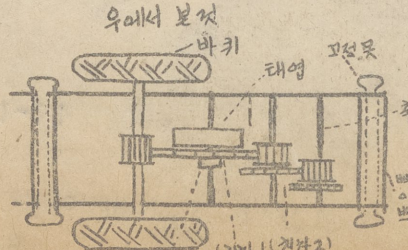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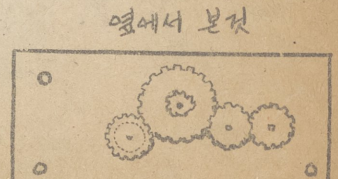
먼저 다음과 같은 뜨락또르의 부속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치차—원형 철판 둘레에 톱날 모양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으로 도려낸 다음 줄로 쓸었습니다. (그림 1)

(1) 1개 (2) 2개 (3) 1개

(그림 1)

그리고 4개의 치차는 그림 2와 같이 동굴 철판에 볼반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쇠줄을 꽂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림 2)

치차와 축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치차 2~3은 축을 꽂을 구멍을 모두 4각형으로 뚫습니다.

바퀴—목선반을 리용하여 그림과 같은 4개의 바퀴를 깎았습니다.

틀—틀은 알미늄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틀에는 고정못과 치차의 축을 꽂을 구멍을 뚫습니다. (그림 3)

이외에도 고정시키는 못과 치차의 축, 철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립

그림 4와 같이 매 치차를 축에 고정시켜 조립합니다.

태엽을 감는 치차는 다음과 같이 조립합니다. 먼저 태엽 안끝을 직각이 되게 꾸부려서 축에 고정시킵니다. 다음 태엽의 오른쪽에 치차 1을 축에 꽂아 놓습니다.(고정 시키지 말것) 다음 그 치차의 오른쪽견에 치차 3을 꽂고 축에 고정시켜 놓습니다.(그림 5 참고) 그리고 태엽을 감을 때 편리하고 풀리지도 않게하기 위하여 치차 1에 그림 6과 같은 장치를 해야 합니다.

치차 조립이 끝나면 두개의 알미늄판 사이의 해당한 위치에 치차의 축을 맞추고 고정시키는 못을 박습니다. 고정시키는 못에는(두 알미늄판 사이) 철판을 씌워서 두 알미늄판을 조일때 안으로 조여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히 조립한 기계의 원체를 보면 그림 7 8과 같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된다음 뜨락또르의 모양을 만들어 씌우면 뜨락또르가 되고 또 자동차의 모양을 만들어 씌우면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평양시 서성 중학교 공작 크루쇼크—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산과실 따기와 산나물 캐기에 모두다 나서자!

여름과 가을 철에 걸쳐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어디를 가나 도토리, 다래, 돌배, 들쭉, 머루, 딸기, 찔광이, 참배, 복숭아, 밤, 오미자, 오두 등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많은 야생 과실이 무르 익습니다.

이 야생 과실들을 잘 리용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맛 좋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7월 6일 공화국 내각에서는 내각 명령 제 32호를 내리여 도토리와 들쭉을 비롯한 여러가지 야생 과실들을 많이 따며 산나물을 캐서 각종 부식물과 술, 시롭, 과자 등 식료품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은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는 데 여기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지 학교 단 분단들에서는 내각 명령 제 32호를 전체 동무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여름 방학과 일요일 또는 방과 후 등을 리용하여 «산 놀이» «야영대» «등산대» 등을 조직하여 산 과실을 따고 산 나물을 캐는 일에 힘껏 참가 하여야 하겠습니다.